

첨단·문화·환경 공존하는 ‘도시 디자인’ 절실



광주 동시다발 재개발 빛과 그림자

광주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곳은 동구와 북구 지역이다. 옛 전남도청이 자리했던 동구와 교통중심지 역할을 했던 광주역이 위치한 북구는 광주의 옛 흔적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구 도심이다. 주택재개발사업 33곳 가운데 각각 14곳, 10곳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서구, 남구, 광산구 등 3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

지만 동구와 북구는 제외된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구의 재개발은 계림2, 지원1, 계림7, 계림8, 산수1, 계림5-2, 지원2-1, 학동3 등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학동4, 계림4 등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 북구에서는 임동2, 우산, 중흥3 지역 등이 착공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임동, 누른, 풍향, 북동 등에서 대단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도심 개발 필요성 인정 주민의견 선행 주거지 정체성 제고 정비사업 추진 타당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 마련을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북동과 인접한 임동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또한 부동산업체에 매각되면서 공동주택 혹은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동 방직공장은 1935년 일본인이 세운 공장이 시초이며,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산업문화 유산이다. 광주시는 5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해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거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5 광주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역사문화자원 주변부의 개방감 확보와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존상태 미흡, 인근 지역과의 부조화, 도시재생 혹은 주거단지계획 시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주거지의 정체성을 살리는 통합

디자인과 다양한 기법의 개발 방안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 인접한 문화재의 경관 자원화를 적극 모색하고 문화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밀집지역은 도심의 상징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주요 소재로 이를 활용해 기능을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도심 관광자원과의 연계 유지를 위한 보행 및 도로계획도 요구되고 있다. 무분별하고 천편일률적인 공동주택 개발보다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주변 경관,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도시디자인’이 절실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북동의 경우는 상업지구로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용적률 400%이하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문화재가 인접하고 행정절차상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의견이 부족하다해서 제공고해 주민의견수렴단계를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이기자

금지사·지역 국회의원 ‘행정통합’ 신중 모드

서울서 예산정책간담회 개최…현안 예산 지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불을 지핀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논의 전 지역사회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남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시장이 제안한 시·도 통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시·도 통합에 참석자들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통합 논의가 언론 보도 등으로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오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하려면 공론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찬반 의견을 모으는 등 신중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간담회에서 후속 단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시·도지사와 민주

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의 4자 연석회의의 개최도 조급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4자 연석회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도 상생의 취지로 제안했던 것인데 시·도 통합 논의 자리로 비쳐 조심스럽다”며 “언제든 만날 수 있겠지만 깊이있는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전남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 건설과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국립 심뇌혈관센터 조성 등 정부안에 일부 반영됐지만,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용역·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설계비가 투입돼야 할 사업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돼야 할 지역 현안 사업 26건도 논의했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김 지사는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원점 재논의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삼급 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는 23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2021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李시장 “어르신 정보활용 기회 더욱 확대해 나갈 것”

광주시가 어르신들의 사람방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1천300여개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정보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동구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wi-fi) 공급’을 위한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용섭 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흥일 시의원, 김현숙·조승민·홍기열·박진원 동구의원, 시민권익위원회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시 관내에는 8월말 기준 1천335개 경로당에 4만6천17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바깥활동이 어려워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이용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공공 와이파이(wifi)를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날 한 시민은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돼 인터넷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경로당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시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추석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염려와 고충이 적잖아 안타깝다”면서 “어르신들도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 친지, 이웃 등과 소식을 나누고 비대면 정보를 주고받는 전 국민 휴대폰 시대에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계층간, 세대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시, 아동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돌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전액 국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교 이하(2008년1월~2020년9월 출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20만원(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2014년1월~2020년9월 출생아) 7만6천여명

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시교육청 지원 대상인 취학아동(초1~6학년) 8만9천여명은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부터 아동수당 및 특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민기자

전남도, 추석 관광·숙박시설 방역 특별점검

전남도는 23일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10월4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태세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맞아 고향 인근 관광지와 숙박시설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순천만국가정원, 아쿠아플라넷 여수 등 관광지 187

개소와 진도 솔비치, 여수 디오션 등 숙박시설 294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직원 92명과 함께 올해 문제부 전액 국비(54억원) 사업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440명의 방역관리요원 등 총 532명이 집중 투입된다. /김재정기자

www.hshi.co.kr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